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160
----------	------

발의연월일 : 2020. 12. 07.

발 의 자 : 이병훈 · 이상현 · 홍성국
이광재 · 송갑석 · 김승원
김종민 · 이성만 · 남인순
전재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에 대해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현재는 호텔업에 대한 재산세 관련 지원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등 경영 악화 요인으로 호텔업계가 지속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어, 향후 호텔업 서비스 질 저하 및 우리나라 관광숙박업 시장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호텔업계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 지원의 일환으로 호텔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중 “외국인투숙객 비율”을 “매출액”으로, “2014년”을 “2021년”으로, “특1등급”을 “5성급”으로, “특2등급”을 “4성급”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략)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u>외국인 투숙객 비율</u>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u>2014년</u>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관광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급이 <u>특1등급</u> 및 <u>특2등급</u> 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경감한다.	② ----- <u>매출액</u> ----- ----- ----- ----- ----- ----- ----- ----- ---2021년----- ----- ----- -----5성급----4성급-- ----- -----.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